(IV) 하나님과의 거리 측정의 은사

(고전12:8~11)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사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의 거리 측정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은사는 예언함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 은사들을 하나씩 해도 사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냥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히 구분되는 특징적인 outline만 점검해보면서 지나갑니다.
자세한 것은 그 outline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의 거리 측정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두 은사는 근본적으로 한 은사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언함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함의 은사를 받으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함의 은사에서 '예언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말뜻대로 풀이하면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나 계시를 미리 공표함'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뜻 때문에 우리는 예언함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일과 연관 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활동의 본질적인 의의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언활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의, 본질적인 중요성과 가치는 구약에서의 예언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변함없이 미래지향적인 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예언의 무게중심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에 놓여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선민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살고 있는가를 측정한 결과를 공표한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미래와 연관되는 것은 미래에서 일어날 일, 이미 선민들에게는 누구나 기정사실화 돼있을 만큼 알려져 있는 미래의 사실,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사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사건은 이미 구약의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활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예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정사실화 돼있고, 기정사실화 돼있는 메시아사건은 제사활동을 통해서 예표 되어 있으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부터 지금을 보고, 지금에 일어난 하나님과 선민과의 영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사건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활동이 중심이 돼있는 삶 속에서 예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기정사실화된 십자가사건으로부터 지금을 보면서, 지금 현재 예언자들 당대에 살고 있었던 선민들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말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서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망하게 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중요성과 가치는 미래에 바벨론과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중심은 언제나 지금 현재 선민들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나 알려주는 것에 예언의 중점이 놓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예언기도라고 말하는 것, 예언기도의 제단을 쌓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택시를 사서 하는 게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집을 팔아 택시를 사고 남는 돈 중 얼마를 헌금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예언기도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예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구체적인 일들을 예언하는 이런 따위의 일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고 도둑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예언기도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점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게 될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거 없어요.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민들, 그리고 신약에서 교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언함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사인 이유는 아무나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자질이 탁월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대째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세상 바깥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종교생활이 삶에 고정된 패턴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홍수 속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홍수 속에 살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막연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측정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름뿐인 하나님의 구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3대째 4대째 믿으면 그 집안은 영적으로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막연하게 느낍니다, 또 기성교단에 속해있으면 살아지는 그대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또한 대형교회 교인이 되면 신앙적 오류로부터 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이나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크기, 이런 것에 근거된 막연한 우월감

이 정통성에 대한 인증쯤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확신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종교적인 삶이 패턴이 돼버릴 때 나타나는 오류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데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정도로 치명적인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민의 집단이나 교인의 집단 속에 있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이웃 교인들과의 영적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옳다고 믿는 확신에 잠겨있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교인이고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집단이 교인이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보통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선민과의 거리는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선민,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끼어들고, 사업이 끼어들고, 돈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끼어든다는 게 무얼 뜻하는 겁니까?
선민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좋아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세상의 돈, 자식, 애인, 사업, 일류대학을 좋아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간격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한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집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점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일을 이루고 싶은 뜻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갖고 싶은 것을 이룰만한 힘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선교 사업이라도 목회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교 사업을 꿈꾸고 자꾸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목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이건 목회 사랑이지 하나님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죽어버리는 상태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 제로의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 뜻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내 힘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격, 대제사장도 못보고 제사장도 못보고 율법사도 서기관도 못 보는 이 거리를 예언자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 거리를 보고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앗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십자가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려면 거리가 영점인 상태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리의 영점인 위치를 포착하는 거예요.
거리의 영점 위치는 십자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선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예언자들만 알고 있는 특권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십자가의 예표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적 생활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못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본 것은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사건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고, 새삼스럽게 공표할 것도 새삼스럽게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지금을 본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로부터 지금을 본 거예요.
신약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예언이 그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단, 다른 게 있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사건으로부터 당신들의 지금의 거리를 측정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취된 십자가로부터 지금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북 왕국이 앗수르에 망한 것처럼,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거리 영점의 위치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예언자들이 없으면, 교회의 교회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라고 이름 하는 인간적 단체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의 모임인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에 예언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자, 그러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예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있는 영인지를 알 수 있고, 영들 분별함이란 거기에 더해서 결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도록 마음이 고정된 자들을 가려내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밖의 이단들을 가려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정확하게 신학적 훈련을 쌓으면 누구나 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을 가려낼 수 있어요.

이건 은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통교단 안에 속한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불의한 영과 거짓된 영을 가려내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이야말로 은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된 영으로 분별하면서 멸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므온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총적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신학대학 총장님 교수님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감히 신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교단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홧김에 상대방을 향해서 마귀새끼들이라고 욕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리신 판결입니다.
이러한 영분별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분별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에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또, 자신이 성령이요 재림예수라고 그러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건 눈곱만큼의 신학적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고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배가 땅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 땅에 붙고 이 땅을 먹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도자의 입장에 설 때,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거짓된 영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도깨비 탈을 쓰고 나타나는 자들이 악한 영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 악한 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지로는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 그래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 돈을 물 쓰듯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큰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못 견뎌서 교인들을 달달 볶고 있고, 교인이 5천 명 만 명 되지 않았다고 부목사들을 아침 조회 때마다 조져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마음을 딱 붙이고 있는 그자들이 도저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세상에 배를 붙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하나님께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을 경우는, 그들이 바로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된 영인지 아닌지,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 땅입니다, 틸리히의 말대로 지금 현재 그 마음의 궁극적 관심이 이 땅에서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총회장 되는 것이고, 노회에서 서기라도 한 번 하고 싶어 기웃거리는 것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그것으로 마음에 만족을 얻고 배불리려 하는, 흙을 먹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좋아할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음을 체득하는 자들, 내 뜻이 죽음을 체득하는 자들, 내 힘이 죽음을 체득하는 자들, 이걸 체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 이들

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체득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간격이 제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있고 그 자리에 서있을 만큼 주님의 죽음이 내 마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체득된 자들만이 현재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예언할 수 있고, 영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다는 이 포인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아니, 백 가지 천 가지 은사가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요런 은사, 그런 은사, 각종 은사가 주어지고, 어떨 때는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의 죽음으로 체득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예언함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바로 가고, 우리 이웃의 교인들이 바로 가고,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을 개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